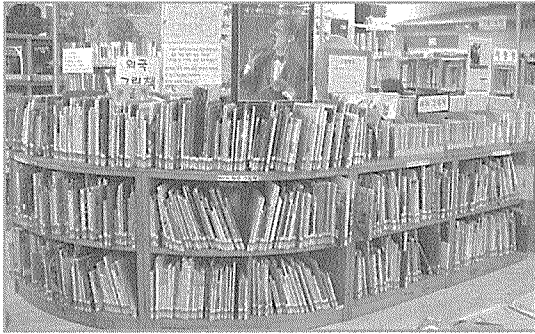


도서관탐방
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

온 동네 느티나무 한 그루 심어질 그날을 기다리며...



〈도서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많은 책들이 서가에 꽂혀 있는 광경〉

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가는길...

가을 빛이 완연할 때 모처럼 만에 사무실을 벗어나 향기로운 자연과 동화될 수 있었다.

어느새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도착한 곳은 용인 수지였다. 예전에 느티나무 도서관이 처음 문을 열던 날 부푼 가슴을 안고 찾아왔던 옛 기억을 더듬어 도서관 문 앞에 다다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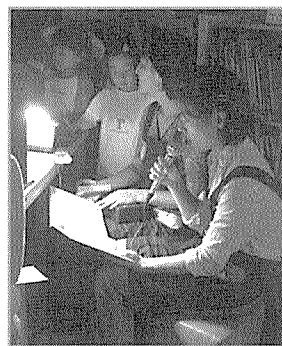
아파트 지하상가에 위치한 터에 몇 계단을 내려가고 보니 재미난 미끄럼틀이 있었다.

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도서관 입구로 들어가고 있었다. 그 다음 마주한 것은 신발장에 가득찬 신발과 현관에 가득 찬形形色색의 신발들이었다. 잠시 어지럽기도 했으나 현관을 막 들어선 순간 '와 많다.' '책이 참 많다.'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는 것이다. 정말 꿈꾸던 '도서관'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. 또한 자유자재로 책을 읽고 있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진정한 '도서관에서의 놀이문화'를 보는 것 같았다. 이 곳의 이용자들은 그야말로 책

을 제대로 읽고 즐기고 있었다. 정형화된 학습공간에서 같은 자세로 책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보통의 도서관에 대한 느낌이라면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은 그야말로 책과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. 마치 각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듯한 여유로운 모습들 말이다.

어느날 찾아온 우연한 전화... 많은 사람들에게 느티나무 도서관을 소개하고 싶다는 조내식 사무국장의 말에 선뜻 길을 나섰는데.. 아마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서관의 풍경을 우리 《도서관문화》 편집팀에게도 실감시켜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... 탐방요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.

이야기극장 219번째 기념파티



〈이야기극장 진행 모습〉

마침 도서관을 탐방한 날이 느티나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"이야기극장"이 지난 2000년 2월 19일(토) 도서관이 문을 연 이래로 매주 수요일 한번도 빠짐 없이 열려 219번째를 맞은 날이라 하여

기념파티로 분주했다. 이야기극장은 책을 많이 자주, 많은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림책을 사진기로 찍어 슬라이드 필름으로 만들어 상영하는 형태였다. 신기했던 건 우리 편



〈이야기극장 상영 모습〉

집팀이 이런 큰 행사가 있는 날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. 오히려 그 어느 곳보다 자유롭고 진솔된 얘기를 편안하게 많이 나눌 수 있었다. 그것이 가능했던 건 다름 아닌 내 집처럼 도서관에서 여유롭게 ‘도서관 놀이’를 즐기고 있는 많은 어머니와 어린이, 자원활동가들의 도움이 컸기 때문이다.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특별한 무슨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‘스스로’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. 무척이나 감격스런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. 진정으로 이용자와 동화되어있는 멋진 도서관을 만난 탓에 흐뭇하고 가슴 벅차던 그 순간은 아직도 짜릿함으로 다가온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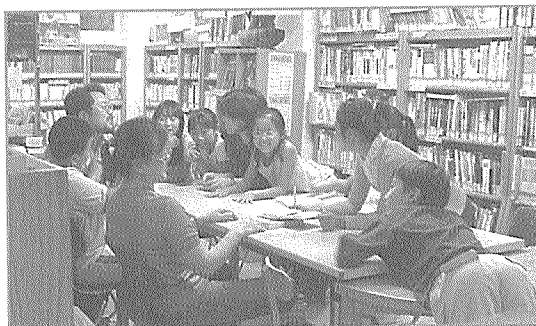
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이 담고 있는 많은 의미들



〈자유롭게 독서하는 아이들〉

도서관 이곳저곳에 이끌려 한참을 돌아본 후 박영숙 관장, 조내식 느티나무문화재단 사무국장, 이유정 사서, 강창래 자문위원, 김은정 재단간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.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은 1999년 난곡 주민도서관 10주년 행사에서 힌트를 얻어

서 개관을 했다고 한다. 느티나무처럼 오랜 세월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할 곳이 바로 도서관이고 동네마다 느티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어 언제든 누구든 와서 기대어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,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해주고 동네 주민간의 화합의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다고 한다. 참 깊고도 많은 뜻이 담겨져 있었다.



〈자유롭게 독서 토론을 하는 모습〉

느티나무문화재단의 도서관학교,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의 도우미 뿌리깊은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...

이렇게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은 이제 5년을 훌쩍 넘겨 곳곳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. 많은 곳에서 견학을 와 이제는 아예 금요일 오전을 견학하는 날로 정했다. 그러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자 2003년 느티나무문화재단도 설립했다. 재단 설립으로 인해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은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,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와 동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마을의 중심체가 될 수 있었다. 재단이 설립되면서 기존의 도서관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중 어린이 전문사서 양성, 도서관학교, 어린이서비스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고 한다.

특히 도서관과 어린이서비스에 관심 있는 사람이



〈원화 전시회 모습〉

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학교는 올해로 4년째를 맞아 80여명 정도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, 어린이도서관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 지방 도서관에서도 매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고 한다.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과 느티나무문화재단은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까운 이웃 마을도서관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이나 도서관을 처음 만들 때 알아야 할 점 등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.

현재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은 느티나무문화재단과 함께 쑥쑥 자라나고 있다. 많은 자문위원 및 도우미들의 도움과 매주 실무자회의에 참여하는 8명의 실무진들이 도서관 및 문화재단을 꾸려나가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.

특히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의 도우미는 '누구나 다 도우미가 될 수 있다.'는 모토 하에 자유롭게 구성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. 도우미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도 이루어져서 이용자에서 도우미로, 도우미에서 재단간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정씨의 경우도 주목해 볼 만하다. 정해진 시간에서 일을 수행한다는 기분보다는 내집처럼, 언제든지 편안하게 즐긴다는 기분으로 도서관을 드나들다 정이 들어서 계속 나오게 됐다는 느티나무도서관의 도우미들은 도서관의 온갖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도서관에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, 더없이 중

요하고 빛나는 존재들이다. 바로 '시민과 함께 꾸려 가는 도서관'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게 했으니 더욱 값진 일이 아닐 수 없다.

마을마다 느티나무처럼 편안하게 설 수 있는 도서관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또한 아이들이 각박한 세상에서 무엇인가 많이 빼앗기고 있어 책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 도서관을 열게 됐다는 박영숙 관장의 말처럼 이 땅의 온 동네에 느티나무 한 그루 심어질 그 날을 손꼽아 기대해본다. (글 : 심호정, 사진 : 최인경)

◆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. 홈페이지 주소는 <http://www.neutinamu.org/>이다.